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가족 사진: 탄자니아 다르에살람 해변가에서

샬롬! 로고스호프에서 신 선교사 가정 인사드립니다. 한국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져 겨울로 들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며 로고스호프에서 소식 전합니다. 저희는 케냐에서의 40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항구에 10월 5일 도착하였습니다. 로고스호프의 아이들은 9월 25일 긴 방학을 끝내고 선내 학교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 새 학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기 구명정 승선 훈련 중에도 전혀 울지 않는 이안이와 함께



새삼스럽게 부쩍 큰 아이들이 감사한 요즘입니다



주안이 반 친구들
왼쪽부터 주안이, 에버릿, 데즈레이, 트릭시

주안이는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되어 선생님이 바뀌고 수업시간도 조금 더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이제는 혼자서 저희 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주안이는 새로운 누나 두 명과 동갑내기 미국 친구 에버릿과 이렇게 4명이 수업을 하게 되어 전보다 더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업 이후에는 일주일에 세 번 방과 후 활동 **스포츠 클럽, 공작 클럽, 빵굽기 클럽**도 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거의 에버릿과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에버릿이 휴가를 가거나 없는 날에는 정말 심심해 합니다. 이안이는 계속해서 같은 선생님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장소를 낯설어 하는 이안이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새로 온 친구가 2명이나 생겼지만 같은 나이여서 인지 금새 친해졌고, 이제는 이안이가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합니다. 처음보다 많이 달라진 이안이의 모습을 보며 요즘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내 주방 견학 중인 이안이 반 친구들
왼쪽부터 이안이, 사무엘, 라일리, 베넷



다르에스살람 항구에 정박한 로고스호프



한인교회에서 주신 깻잎으로 만든 무침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은 제2의 도시로 전에 수도였는데, 지금은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곳은 경제중심지로 발달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수도여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많은 대사관들이 있고, 주재원들도 많이 살고, 한인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중국마트도 있고 한국식당도 있어서 그리웠던 음식도 먹고, 장도 볼 수 있는 기억에 남는 항구가 되었습니다.

신 선교사는 계속해서 바쁘게 인사부장을 감당하고 있고, 간간히 규칙을 지키지 않는 선교사들을 훈계하고 힘들어 이들은 위로하며, 많은 회의들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사역을 나가는 날이 주어지기에 현지교회에 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환경을 갖춘 교회들은 아니었지만 환경과 조건에 상관 없이 열정적인 찬양과 흥겨운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모습에 예배를 새삼 배우는 현장들이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한인 선교사님 내외분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력선교사로 있는 '우리는 교회' **한윤호 담임 목사님 시무**에서 협력하고 계신 김현식 선교사님 내외분을 만나 함께 교제하며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조각 시장에 상점도 가보고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지인들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여 현지인들이 직접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는 교회로 세워져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잘 자리잡아 시장 주변의 분들까지



현지 교회에서 설교 중인 신사랑 선교사



김현식 선교사님 내외 분과
로고스호프 선교사들이 함께 교제하며



김현식 선교사님이 지원하시는
조각 시장 토요예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다르에스살람 지역도 무슬림들이 많고 특히 조각 공예 시장에 무슬림들이 많아 그동안 7차례 정도 예배장소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께서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오기까지 그리고 오셔서 정착하시고 이 사역을 이루신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절로 느껴져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조각품들을 만들고 있는 조각가들

로고스호프 선상에서 열린
기독교 여성 이벤트에서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열린
선상 어린이 성경학교 프로그램

도 선교사는 여성 이벤트에 참석하여 탄자니아 교회 여러 곳에서 온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배에서 이루어진 이벤트인데 공간을 예쁘게 장식하고 커피와 쿠키, 차 등을 대접하며 말씀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사진을 같이 찍으며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나중에는 통역해 주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말씀과 선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룹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이나 계셨는데 사모님과 그리고 평신도까지도 여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단단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했음을 볼 수 있어 도전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며 또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김새도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를 게 없구나 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동역자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역사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1.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과 성도 교제의 씨앗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2.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3. 저희가 새롭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하고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안이, 이안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마다가스카르, 토아마시나 11월 16일 ~ 12월 13일

모잔비크, 마푸투 12월 19일 ~ 1월 19일

남아공, 리처드 베이 1월 20일 ~ 2월 20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택널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